

# MLB 개막전 선발 랭킹 류현진, 30명 중 19위

어깨 부상 커쇼 대신 나서...1위 워싱턴 슈어저



류현진(32·LA 다저스)이 야후스 포츠가 선정한 메이저리그(MLB) 개막전 선발 투수 랭킹에서 19위에 올랐다.

야후스포츠는 26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개막전 선발 투수 랭킹을 공개했다. "선발 투수 랭킹은 주관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과거 성적에 무게를 두고 정한 랭킹"이라고 전했다.

류현진을 19위에 올렸다. "류현진은 어깨 부상 여파로 개막전 선발을 놓친 클레이턴 커쇼 대신 개막전 선발로 나선다. 다저스는 리치 힐과 워커 블러 없이 시즌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류현진은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

서 열리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정규시즌 개막전에 선발 등판한다.

당초 다저스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연속 개막전 선발을 맡은 에이스 커쇼를 올해도 개막전 선발 투수로 내세울 예정이었다. 하지만 커쇼가 스프링캠프 초반인 지난해 중순 왼쪽 어깨 염증 진단을 받으면서 시즌 준비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해 계획이 어긋났다.

블러는 지난해 많은 이닝을 소화해 관리 차원에서 시범경기 등판 등 시즌 준비가 늦어 개막전 선발로 등판하기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리치 힐이 왼쪽 무릎을 다치면서 류현진이 개막전 선발로 낙점됐다.

뉴시스

한국인 선수가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개막전에 선발 등판하는 것은 류현진이 박찬호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박찬호는 2001년 LA 다저스 2002년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개막전 선발로 마운드에 올랐다.

야후스포츠가 개막전 선발 투수 랭킹 1위에 올려놓은 선수는 워싱턴 내셔널스의 에이스 맥스 슈어저다. 슈어저는 지난해 제이콥 디그롬(뉴욕 메츠)에 밀려 사이영상을 수상하지 못했지만, 18승 7패 평균자책점 2.53으로 빼어난 활약을 펼쳤다. 특히 22%이닝을 던지면서 300개의 탈삼진을 잡아냈다.

보스턴 레드삭스의 크리스 세일이 2위다. 지난해 다저스와의 월드 시리즈 5차전에서 마무리 투수로 등판해 팀 우승을 결정지었던 세일은 올 시즌 개막전 선발 중책을 맡았다. 세일이 개막전 선발로 나서는 것은 개인 통산 5번째다.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에이스 저스틴 빌런더가 3위를 차지했고, 지난해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수상자 디그롬이 4위에 자리했다.

류현진과 선발 맞대결을 애리조나의 잭 그레이슨이 8위다.

뉴욕 양키스의 에이스 루이스 세베리노가 부상을 당하면서 개막전 선발로 나서게 된 일본인 투수 다카 마사히로는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통산 4번째로 선발 등판하는 다카는 노모 히데오가 가지고 있던 일본인 투수 개막전 선발 최다 등판 기록(3회)을 넘어섰다.

뉴시스

## “저연차·저연봉 선수 처우개선”

한국프로야구선수협 새 회장 이대호

“저연차·저연봉 선수들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선수와 구단, 팬 등의 중간 역할을 잘 하겠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장으로 선출된 이대호(37·롯데 자이언츠)가 25일 부산 동대구 사직야구장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이대호 회장은 “후배들이 뽑아줘서 이 자리에 앉게 됐는데 선배들이 잘 만들어 놓은 자리라 책임감이 크다. 어려운 시기에 맡았다. 구단들과 잘 대화해 잘 하도록 하겠다. 이익만 생각하기보다는 팬들을 생각해서 잘 하겠다. 대변인으로서, 회장으로서 부족함 없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중책을 맡게 됐는데 고 최동원 선수 등상에 현화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고 최동원 선배가 보여준 열정은 후배로서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 최동원 선배의 어머니도 몇 번 만나고 인사를 드렸는데 동상 앞에 가니 마음이 숙연해지고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수 협회장으로서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이 팬들을 위해서 좀 더 즐거운 야구, 깨끗한 야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선수협의 과제는.

“선수협은 2군이나 어린 선수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2군 선수들, 고생하는 선수들을 위해 좀 더 신경을 쓰겠다. 프로야구가 한국 최고 인기스포츠만큼 팬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연봉 선수 등의 처우 개선 문제는.

“선수협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고 구단들과도 대화 중이다. 합리적으로 대화를 잘 풀어서 나중에 다시 말하겠다.”

▶KBO와 선수협의 대화는.

“2년간(선수협) 회장이 공석이였다. 사무총장이 고생했다. 이번 선수협의 FA 관련 의견은 사무총장이 여러 구단 선수들의 의견을 모은 것이다. 선수협의 방향이 바뀌는 건 없을 것이다. KBO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도 있다. 서로 합의해야 한다.”



▶저연차·저연봉 선수들의 목소리를 더 들을 방안은.

“저연차·저연봉의 2군 선수들은 힘들다. 나도 2군에 있어봐서 안다. 기량은 있는데도 1군 주전에 밀려 못 뛰는 선수들이 있다. 이 같은 선수를 다른 데 보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팬들을 위해서는.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구단과 이야기를 잘 해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팬 사인회를 열거나 시합 전 당일 경기에 나서지 않는 선수들에 대해 팬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뉴시스

## 고진영, 뱅크오브호프파운더스컵 역전 우승...통산 3승



고진영이 24일(현지시간) 미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와일드 파이어 골프클럽에서 열린 미어저프골프(LPGA) 투어 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진영(24·하이트진로)이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고진영은 25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와일드파이어 골프장(파 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7개를 쳐 7언더파 65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를 올린 고진영은 LPGA 투어 통산 3번째 우승을 거머쥐었다. 우승상금으로 22만6000달러(약 2억6000만원)를 받는다.

지난해 신인왕 출신인 고진영은 이번 시즌 ISPS 한다 호주여자오픈에서 단독 2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에서는 공동 3위, 그리고 이번에 정상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제시카 코다 벨리 코다(이상 미국), 류이는 최종합계 21언더파 267타로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세영(26)과 김주후(24)는 나란히 17언더파 277타를 기록해 공동 10위에 랭크됐다.

시즌 2승에 도전한 박성현(26)은 15언더파 273타 공동 14위, 디펜딩 챔피언 박인비(31)는 11언더파 277타로 공동 34위에 머물렀다.

한편 26일 발표된 롤렉스 LPGA 세계랭킹에서 고진영은 랭킹포인트 5.31을 얻어 4위에 랭크됐다. 한 주만에 순위를 5계단 끌어올렸다. 18일 발표된 랭킹에선 9위였다.

세계랭킹 1위는 박성현(26·한국)이 지켰다. 박성현은 지난 4일 이후 4주 연속 1위다.

## 박찬호 “파이팅 몬스터!”...개막전 선발 류현진 응원

‘코리아 특급’ 박찬호(46)가 한국인으로는 17년 만에 개막전 선발 등판을 앞둔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2·LA 다저스)을 응원했다.

박찬호는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계정에 류현진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응원의 말을 남겼다.

“선수자가 열어놓은 문이 닫히지 않는 것은 후배가 있기 때문이다. 선수자가 지나간 길이 더욱 다져지는 이유는 그 길을 가는 후배들이 훌륭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 문

을 닫지 않고 그 길에 더욱 환한 등불들을 다는 것은 훌륭한 후배가 만든다. 그 후배가 류현진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파이팅 몬스터!”라며 응원했다.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거인 박찬호는 선구자 같은 존재다. 한국인 메이저리거 최초 승리 투수 최초 완봉승 첫 개막전 선발 투수 최초 올스타전 출전 등의 족적을 남겼다.

2013년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은 류현진이 그 길을 따라 걸고 있다.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포스팅 시스

템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류현진은 메이저리그에 정착했고, 지난해 월드시리즈에서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다.

류현진은 29일 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정규시즌 개막전에 선발 등판한다.

박찬호가 걸었던 길이다. 한국 선수가 메이저리그 개막전에 선발 등판하는 것은 류현진이 역대 두 번째다.

자연의 숨겨진 매력

##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순천, 창세미골, 회현사, 선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